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3월 2일(일) 제1530호

2025 순장영성수련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 리더십 2,100여 명 참석,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

‘2025 순장영성수련회’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주제로 3월 3일(월) 오전 9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場)이 펼쳐진다. 온누리교회 국내 12개 캠퍼스 공동체 리더십(공동체 담당 장로, 총무, 다락방장, 순장) 2,100여 명이 참석한다.

2025 순장영성수련회에서는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한강공동체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공동체 발표 및 패널 토의, ‘한국 교회와 열두 돌’ 영상 상영,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 온누리순장 어워드(Award), 기도회, 순장 명랑운동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되는 패널 토의는 조호영 목사가 사회를 보고, 이기원 목사, 김승수 목사, 심희돈 장로, 김건백 장로, 양지는 자매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나눌 예정이다.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식에서는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536명이 임명장을 받는다. 김장열 다락방장(강남A공동체), 김윤옥 순장(신용산공동체), 차예송 순장(수원 남누리공동체)이 대표로 임명장을 받는다.

온누리 순장 어워드에서는 최장기 순장상(가장 오랫동안 쉬지 않고 섬긴 순장), 최다산 순장상(분순을 가장 많이 한 순), 기러기 순장상(가장 먼 거리를 이동해 순을 섬긴 순장), 감동 순장상(공동체에 모범이 되며 많은 성도에게 감동을 준 순장), 최고령 순장상을 시상한다.

순장영성수련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행사 당일 교회주차장(교회 지상 및 지하, 온누리청소년센터 임시주차장)은 3인 이상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차량은 인근 유료 주차장(동작대교 밑 공영주차장, 신동아쇼핑센터, 한강시민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이용해야 한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촌역(4번 출구)에서 서빙고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오전 7시 5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어린 자녀(36개월



사진은 지난해 '순장영성수련회'.

~초등 3학년)와 함께 오는 리더십을 위한 탁아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의: 02-3215-323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어린 양을 바라보라!

3월 10일~4월 18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3월 10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어린 양을 바라보라’를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오전 5시 30분 막 오른다.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주별 주제를 따라 진행된다.

1주차(3/10~14) ‘영원하신 어린 양’, 2주차(3/17~21)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3주차(3/24~28) ‘세상을 섬기신 어린 양’, 4주차(3/31~4/4) ‘죽임 당하신 어린 양’, 5주차(4/7~11) ‘부활하신 어린 양’, 6주차(4/14~18) ‘다시 오실 어린 양’이 주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와 박종길 목사, 강부호 목사, 이기원 목사, 이기훈 목사, 캠퍼스 담당 목사, 온누리교회 30~40대 부목사들이 설교한다.

고난주간(4/14~18)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 전후 침묵으로 기도한다. 교회 로비에 설치된 ‘회개의 십자가’에 기도제목과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못으로 박고 회개하는 의식도 한다.

/ 홍하영 기자

창조세계 돌봄!

3월 10일부터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2025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세계 돌봄’(부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3월 10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는 이 기간 하나님의 창조 선물 7가지(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를 묵상하고, 이와 관련한 창조세계 돌봄을 위한 실천을 한다.

올해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에서는 매주 월요일은 ‘인간’을 주제로 한 실천을 이어간다.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가족과 이웃에게 1주차 “감사합니다”, 2주차 “사랑합니다”, 3주차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4주차 “힘내세요”, 5주차 “응원합니다”, 6주차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차별 주제(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에 맞춰 실천하면 된다. 1주차 ‘빛’에 대한 실천 사항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컴퓨터에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하기 등이다. 2주차 ‘공기’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실내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등이다. 3주차 ‘물’은 텀블러 사용하기, 일터에서 자기 컵 사용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등이다. 4주차 ‘땅’은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이면지 활용하기 등이다. 5주차 ‘계절’은 제철 음식과 채식 위주 식사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생활용품 기부하기 등이다. 6주차 ‘생명’ 관련 실천 사항은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헌혈하기, 차별 금지법 바로 알기 시청하기, 각종 중독의 심각성 인식하고 대응하기 등이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기간에 묵상한 내용과 실천 사항, 실천 사진, 소감문을 4월 20일(일)까지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 이메일(onnuri.lent@gmail.com)이나 문자(010-6442-01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와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소감문을 제출할 때는 공동체와 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배너(e-Book)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사회선교본부(02-3215-3434)

/ 홍하영 기자

CGN <바울로부터>, ‘ICVM 크라운 어워즈’ 금관상 수상

CGN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기독교 미디어 콘퍼런스 ‘ICVM 크라운 어워즈’ 최우수 해외 프로덕션(Best Foreign Production) 부문 금관상(Gold Crown Award)을 수상했다.

‘ICVM 크라운 어워즈’는 올해 52회를 맞은 국제 기독교 콘텐츠 시상식이다. CGN은 ICVM 크라운 어워즈 금관상 수상을 기념해 <바울로부터 스페셜 마스터>를 3월 1일(토) 저녁 7시 특별 편성한다. CGN TV와 기독교 OTT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공동체성경읽기모임’ 개강

‘공동체성경읽기 모임’이 개강한다. 3월 14일부터 약 1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믿음홀(신동아쇼핑 2층)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10명 모집한다.

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서는 성경 말씀과 신앙서적(오디오북)을 듣고 읽은 후 나눔을 한다.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교제도 한다. 신앙서적은 마틴로이드 존스 목사의 <진노 아래 놓인 민족>을 읽는다.

문의: 010-5603-5500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의 공통점은 교회의 제도나 규모, 조직 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는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가?’, ‘예수님에 대해 왜곡되거나 거짓된 가르침을 얼마나 단호하게 근절시키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평가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과 인내와 충성을 다한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흑독한 책망만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리쿠스’라는 계곡을 따라 형성된 세 개의 도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남쪽에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 무역로와 통신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상업과 행정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토양도 비옥하고,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위치 때문에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부심도 매우 강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낼 것이다’”(14~16절).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증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아멘’과 ‘충성되고 참되다’가 연결됩니다. 하나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8)-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14~22

“미지근함을 회복하고, 자만과 자기만족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 두지 말고, 내 마음에 좌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곧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입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찬 것을 불신의 상태로 표현하고, 뜨거운 것을 믿음이 좋은 상태로 해석하면서 ‘미지근하게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고 합니다.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둘째, ‘차가움’과 ‘뜨거움’을 열정의 온도로 보고 ‘열정이 식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차다’, ‘뜨겁다’는 단어가 사람의 기질, 성격, 열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바른 것은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과 연결해서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말씀에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 친숙한 사이일 때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명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았고, 나머지 여섯 교회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단 하나 결핍된 문제가 ‘물’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물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공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곡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라는 도시가 중요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반대로 골로새는 아주 맑고 차가운 생수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모두 몸에 효과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는 소독과 회복 차원이 있고, 온천수에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은 몸을 자극하고 각성시키고 근육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가 오늘날처럼 관리가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되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이고, 물이 오염 되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물이 이동하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지근한 물은 효과 없는 믿음, 무기력한 믿음, 병든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영혼 상태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라오디게아가 외적으로 잘 갖췄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는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17~18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자기 인식과 예수님의 평가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난하다. 불쌍하다. 그러니 내게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은 불로 정련한 믿음입니다. 그 금이 없는 한 이 땅의 모든 금을 가져도 결코 부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옷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안약이 발달해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주는 약을 발라서 다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풍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모두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변명과 부, 그 자체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영혼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이란 그릇된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영혼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열심’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기 발견이 최우선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고, 자기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이 없는 열심 때문에 우리 신앙이 속는 것입니다. ‘미지근함’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만은 영적 수준이 깊이 올라간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안 믿는 게 낫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믿는 게 낫습니다. 불신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믿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존적인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책망과 회복, 그리고 두 가지 약속

예수님은 책망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격려하시며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20절의 말씀은 불신자 보다 이미 믿는 성도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문을 열라고 비바람이 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안에서 문을 열리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그분을 자기 마음 밖에 세워 두고 문을 두드려도 모시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함은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진 상태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 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굴복시키고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미지근한 상태,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져서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영적 거지와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왕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부요케 하시고, 벌거벗은 이들을 입히시고, 보지 못한 이들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에서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그분을 온전히 모셔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과 함께 통치함을 약속하십니다(21절).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다시 모셔 들일때, 통치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통치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미지근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 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 보좌의 왕, 통치자로 좌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모시고, 실제로는 문 밖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교육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녀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느 날 주일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고등학생 딸이 나에게 물었다.

“오늘 파워웨이브 예배에서 동성애에 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다르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딸이 내게 이 질문을 해 준 게 반가웠다. 자신이 접한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나는 짧은 답변으로 끝내지 않았다. 세상과 성경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동성애가 흔했던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함께 토론했다. 또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다. 다행히 비슷한 시기에 읽었던 로잔대회 선언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이 어려운 대화를 매번 나누지는 않는다. 유명 아이돌의 복귀와 같은 연예계 이야기, 날씨, 점심식사 메뉴 등 생활의 시시콜콜한 잡담도 한다. 그러다가도 신앙과 과학, 윤리적 문제, 종교 간 관계 등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피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한다. 물론 딸은 대체로 (무신론자들의) 질문을 하는 쪽이고, 나와 남편은 대답하는 쪽이 되곤 한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우리 딸이 세상에

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때로는 공격적인 질문들을 모두 받아 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움츠러들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는 교육학자, 엄마, 신앙인으로서 자녀교육에 대해 고민한다. 교육계에서 일하는 엄마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 궁금해하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 아마도 내게 남이 모르는 정보나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다. 나에게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딸에게 여러 사상과 관점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깨기 어려운 벽인지 알고 있다.

학자의 길로 진로를 정하고 대학원을 다니던 무렵, 나는 교회와 연구실에 갈 때 다른 옷을 갈아입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파고 있는 지식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신앙과 공부하는 학문을 통합하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양자 간의 사고를 단절시키고 싶어 했다. 교회와 학교, 신앙과 학문의 충돌이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때 접했던 기독교 세계관 책들이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다. 2월 말과 3월 초는 설렘과 준비로 분주하다. 학생이라는 직업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12년 동안 아이들은 9천 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낸다. 돌봄교실, 방과 후, 자율학습 등의 선택적 시간

을 뺀 최소한의 시간이 9천 시간이다.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합치면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학교 교육 속에서 보내게 된다. 12년의 학교 교육 동안 우리 아이들은 흔한 표현으로 세상의 지식과 태도를 매우 열심히 배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학업 성취만큼 그 배움의 방향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비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느낀다. 단순히 인구 감소만이 원인이라면 상황이 덜 심각할 수도 있겠지만, 20대에서 무종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다. 2023년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20대의 종교 분포 중에서 약 85%가 무종교이다. (가톨릭을 제외한) 기독교는 9%인데, 이는 10년 전 19%에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그리고 그 배움이 그들의 신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만큼 그 배움의 방향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처럼 신앙과 교육이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변증하고, 신앙을 갖는 이유

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학문을 ‘기독교 변증’이라고 한다. 모든 신앙인이 기독교 변증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믿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은 무신론, 진화론, 인본주의, 다원주의 등 다양한 사상과 이념의 벽 안에 12년 이상 둘러싸여 교육을 받는다. 신앙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믿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고민하고 변증하며 확신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벧전 3:15).

온누리교회에는 ‘세계관학교’라는 배움의 장이 있다. 이곳에서는 신앙과 지식을 연결하며, 신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간다. 앞으로 더 많은 중고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신앙과 삶을 연결해 가길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배움의 장이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이은경 안수집사
(성북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특별기고

출생률 감소로 문 닫는 대학들

휘트니 휴스턴이 “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믿어요”라고 노래했을 때, 그 말이 정말 심오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사실이었다. 실제 이 나라의 학교와 대학의 학생 수를 살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알 수 있다. 〈Education Week〉가 최근 학생 수 부족으로 전국의 공립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수백 차례 학교가 폐쇄되면서 약 120만 명의 학생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2032년까지 학생 수가 270만 명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생 수 감소는 부분적으로 학부모들이 홈스쿨링이나 사립학교를 선택하고, 도시 학군에서 교외 학군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저출산 결과이다.

국민들이 2007년경부터 아기를 적게 낳기 시작했고,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이후 매년 등교하는 초·중·고등학생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18세가 되면서 대학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 ‘인구 절벽’은 미국 고등 교육의 상당 부분을 종식시킬 가능성이 크다.

NPR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일주일에 한 곳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고, 필라델피아 연방 준비은행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학 폐교가 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이 냉정하고 냉혹한 인구 통계학적 현실이다. 2025년의 학급은 2007년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 인구가 2041년까지 13% 감소할 거로 예상되고, 출생률은 여전히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등 교육 이외의 문화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대학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청년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력 감소, 경제 위축, 전 문성과 활력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령화 및 쇠퇴하는 사회를 나타낸다. 조지타운대학교의 한 연구 교수는 “혁신과 대학 수준의 교육에서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경제가 쇠퇴하고 궁극적으로 생활 수준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이고, 현재 젊은이들은 은퇴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의 40%의 도시가 사라질 위험

에 처한 일본만 봐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등 교육의 급격한 위축은 그 자체로 앞으로 다가올 일의 신호다. 노인에게는 젊은이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고령화된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수만 명의 농부, 간호사, 의사, 토목 기술자, 기계공, 목사, 납세자 등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태어나지조차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이 쓰이고 정책이 제안되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가족 연구소〉의 브래드 월콧스가 최근 출간한 책의 제목에서 찾을 수 있다

“결혼을 하세요. 결혼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물론 지금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대학 진학률이나 기타 거시적인 추세에 즉각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무 심기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라는 속담이 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 문화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모든 자원이나 권력 수단 중에서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다.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자원이다. 사람이 없으면 기관과 사회의 기대 수명이 수십 년으로 축소된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는 이를 인정하고 가족을 존중할 것이다. 자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투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도덕적 형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어른들의 욕구보다 아이들의 필요를 최고의 문화적 가치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창조 명령’과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을 물려받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큰 계명을 따른다.

문을 닫게 될 많은 대학은 그럴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8년 뒤에는 대학 기숙사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 세대가 명백한 진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정말 우리의 미래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세인 모리스(콜슨 센터 선임작가)

원문: breakpoint(20250220)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사모함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준비된 신부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비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온누리신문>에서 바로 그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 첫 번째 순서에서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기훈 목사의 글을 소개한다. / 편집자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

‘재림(再臨)’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어떤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며 기대감이 차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앙 등 종말의 모습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

수도 있다.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갖가지 생각이 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해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 정도로만 추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재림신앙과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신앙은 창조신앙과 십자가신앙, 그리고 부활신앙과 함께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재림을 끝없이 말하고 있다. 무엇 하나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간간히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린 이단들 때문에 재림신앙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 교회에서조차 재림에 대해 말하는 게 조심스러웠다. 재림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 주제를 이야기하기 꺼리는 현상이 다분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온누리교회는 2025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신앙을 표어로 삼고 출발했다.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재림신앙을 다짐하고 있다. 2025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할 뿐만 아니

라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등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wig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재림신앙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재림신앙이란 막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소극적인 의미만 담고 있지 않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개인은 물론 이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심판 주로 다시 오시게 될 종말의 날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로 무엇을 의미할까? 사도 베드로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기쁨이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사모함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쁨인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벧후 3:10~12).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가 꼭 실천해야 하는 두 가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참된 경건을 실천하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게 재림신앙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날 결과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다.

“...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 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마 25:1~13).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히 신랑(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철저한 준비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

로 무엇을 실천하면서 생활한다.

첫째, 행실이 거룩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스스로 불신자들과 구별하며 살아간다. 가치관, 생활관, 물질관, 세계관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 말 그대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기대, 경험과 사회적 상식과 다를지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로 가득한 오늘날 세상 풍파 속에서 살지만, 휩쓸리지 않는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성경적 주관을 따라서 생활한다. 이들은 모든 일들, 즉 다수의 사람과 사회적 통념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도 먼저 성경적으로 합당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성경에 부합되는 일은 지지하고 따르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비추어 볼 때 합당하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거부한다.

이들은 세상의 유혹이 강할수록 더욱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속에 흔들려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오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생활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또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분을 닮아간다.

둘째, 경건하게 생활한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정적인 의미보다 동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가

지고 있다. 이 사실은 야고보 장로가 보낸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야고보 장로는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약 1:27). 야고보 장로는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잘 밝혀 주었다. 나그네와 함께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 대상으로 지정해 놓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족과 부모와 남편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고통 중에 최상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로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홀로 인간답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형편의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해 놓으신 이유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당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

그러므로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사회선교’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과 물질로 섬기는 사회선교야말로 경건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사람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사회선교야말로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사역이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과 위로를 전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이 땅에 천국의 모습을 재현하는 사람들이다. 돈과 명예, 심지어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천국 잔치를 여는 사람들이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전도하는 일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는 재림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재림신앙을 추구하는 온누리교회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제자로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도 기대한다. 우리 모두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참된 경건을 실천하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맛있는 말씀 해설

“...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롬 7:24)

이 말씀은 독실하고, 믿음 좋은 대표적인 기독교인 바울이 자신의 갈등을 직접 고백하는 내용이다. 성령의 사람이자 사도의 대표이고,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대표적인 크리스천인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문제이고 고백일까?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자 내면의 갈등이다. <로마서> 1~6장까지 바울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7장에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과 갈등을 말한다. 겉으로는 의로워졌지만, 죄라는 야수가 내면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갈등한다. ‘갈등(葛藤)’은 ‘쥬 갈’과 ‘등나무 등’자를 사용한다. 한자어 그대로 ‘쥬과 등나무’를 뜻하는 말이다. ‘쥬’와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 자라는 특성이 있다. 세심하게 관찰해보면 쥬의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즉 ‘갈(葛)’은 ‘등(藤)’을 감고,

‘등(藤)’은 ‘갈(葛)’을 감아 올라간다. 이처럼 ‘쥬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 까다롭게 뒤엉켜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갈등’이다. 따라서 두 식물은 아무리 길게 뻗어 자라도 화합해서 만날 수 없다. ‘갈등’의 어원은 이러한 두 나무줄기의 속성에서 비롯됐다. 사도 바울은 쥬과 등나무 같은 신앙적인 모순과 갈등을 고백한다. 분명히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자신이 증오하는 것을 행하는 모습 즉, 자신 안에 죄라는 야수에게 지배받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본문을 일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을 고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바울의 이 고백은 현재형으로, 지금 겪는 갈등을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 시점에도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지만, 율법

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죄에 붙잡혀 죄의 종 노릇 하는 자신만 발견한다. 자신이 겪는 이 신앙적인 갈등과 모순을 말하며 자신이 행하는 것을 자기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백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갈등은, 바울의 넘어짐은 안 좋은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이것은 ‘건강한 갈등’이다. 건강한 갈등이 있기에 인간의 내면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이다. 다른 아홉 개의 계명과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것은 ‘행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계명은 ‘내 안에 죄성’을 말한다. 마지막 계명은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을 방지하면 다른 죄를 유발하고,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곤고한 사람이구나”라면서

탄식하고 절규한다. 그리고 그런 나를 누가 구해 달라고 SOS를 보낸다. <로마서> 7장의 갈등과 탄식이 있기에 8장의 영광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시편> 22편의 탄식이 있기에 나오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시 23:1). 탄식 없이는 축복도 없다.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 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닫고, 알면 알수록 죄를 증오하지만, 그 증오하는 죄와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며 갈등하기를 권면한다. 바울처럼 탄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망의 몸에서 필자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한다. 전병천 목사 (마포공동체)



전병천 목사 (마포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온전한 순종, 구원의 완성

3월 3일~3월 9일
<요한복음>
17:20~19:30



목상포인
트 1: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향하신다.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비폭력, 무저항으로 하나님 뜻에 온

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목상하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기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다. 제자들의 하나 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필수다. 예수님은 장래 믿게 될 이들과 함께 포함해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신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신다. 가롯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력행사를 막으시고, 안나스(가야바의 장인)에게 끌려가신다. 예수님은 불의한 심문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당당히 밝히신다. 그러거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

자가 아니냐?”라는 물음에 세 번 부인한다.

목상포인트 2: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다. 예수님은 이방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왕 되심과 진리에 대해 증언하신다. 거짓으로 고발하는 유대인들과 우유부단한 로마 총독, 그들 앞에서 굳은 심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목상하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간다. 예수님을 고발해 로마법으로 죽이기 위함이었다. 빌라도의 심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정체성을 알리신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요구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니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한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그들은 예수님을 놓아 주면 가이사의 총신이 아니라며 빌라도를 협박한다.

목상포인트 3: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을 오롯이 다 받으신다.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사랑과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대해 목상하라.

▶빌라도는 협박에 굴복해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넘긴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한 패를 십자가 위에 붙인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고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숨을 거두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셨다. 가정, 학교, 일터 등에서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 되도록 힘쓰자. ▶예수님은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 열기가 아닌 온유함으로 반응하도록 노력하자.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나의 힘과 의로는 그분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을 담대히 시인하고 전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십자가 형벌을 오롯이 감당하셨다. 현재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닮기로 다짐하자. ▶사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다. 나의 생애 마지막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가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족 건강과 가정 회복

저희 큰형이 2년 전 간암으로 세 군데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이 재발해 3월 9일(일) 병원에 입원해서 10일(월)에 고주파 복강경 수술을 받습니다. 형이 수술을 잘 견뎌내고 온전히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때 해외에서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했고, 그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정신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몸이 매우 아픈 데다가 불안과 초조함으로 인해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두 아이와도 2년 넘게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 아들이 한때 우울 증상을 보였는데, 이제는 명랑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인 큰딸은 서울에 있는 처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수가 줄고, 서울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내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교회에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헌 가족 부대 말고, 새 가족 부대에!

“매년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으른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게으름을 이겨낼 방법이 무엇일까요?”

새해, 새 학기가 되면 우리는 아십 찬 목표를 세운다. 목표는 아무리 거창해도 상관없다. 목표는 일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지표일 뿐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작은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다. 연속적인 작은 성취를 통해서 목표 지점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속적인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물리학에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도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이 새로운 행동에 완전히 적응하는데 걸린 시간이 66일이다. 두 달 동안 새로운 행동을 반복해야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목표를 향한 작은 계획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새 포도주를 낚은 가족 부대에 담은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

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전된다”(마 9:17).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가족으로 만든 주머니에 포도주를 넣는다. 부드러운 양가족에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되면서 그만큼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양가족이 부드러운 새 가족 부대여야 포도주가 발효하는 만큼 거기에 맞춰 늘어난다. 헌 가족 부대는 안에 당분이 묻어 있어서 가족이 딱딱해진다. 그래서 헌 가족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팽창하지 못하고 터져 버린다. 술도 버리고, 가족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목표는 새로운 우리의 모습에 담아야 한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새롭지 않다면 새해가 되고, 새 학기가 되더라도 결코 새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목표를 이루는 것을 가로막는 육신의 정욕, 게으름의 그늘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그것부터 씻겨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마 25:26).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를 숨긴 종의 게으름이 곧 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게으름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고, 그 그늘에 엮매여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정욕을 따라 행하는 모습에 가깝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이든지 받아들이며 행할 수 있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새 가족 부대인가? 아니면 딱딱하게 굳고, 당분이 여전히 들러붙어 있는 혈어 버린 가족 부대인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헌 가족 부대 같은 모습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를 올바르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엡 5:18)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육신의 정욕과 게으름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방탕에 빠져 점점 굳어 가는 헌 가

족 부대를 말하고 있다. 그와 정반대인 새 가족 부대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맺힌 성품을 통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학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팽창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새로운 시작이 선명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다.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기에 앞서서 새로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자. 굳어질 대로 굳어 버린 우리의 고집, 용서할 줄 모르는 강박한 마음, 세상을 빼놓지 게 보려는 혈기 등의 헌 가족 부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며 살아가는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새로운 하루가 펼쳐질 것이다.



장재원 목사
(남양주차세대)

이슈(Issue) 바로보기!

종교개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1천 년 동안 기독교 왕국을 유지하던 15세기 중세 유럽에서 전쟁과 기근, 흑사병으로 인구 50%가 죽었다. 그럼에도 교황은 면죄부를 팔고 있었고, 왕은 여전히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었다. 더는 평민들이 교황과 왕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이다.

종교개혁은 기존의 가톨릭 질서를 부정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새로운 질서를 실험했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제네바 아카데미 졸업생들은 유럽 곳곳으로 흩어졌고, 거대한 개혁주의 물결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했다. 초기 종교의 자유를 요구한 개혁주의 사상이 세대가 지나서 동안 다양한 분야로 확산했다. 개혁주의 사상이 만들어 낸 새로운 정치와 경제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을 지연(왕)과 혈연(가정)에서 떼어서 신 앞에 단독자라는 ‘절대 개인(absolute individual)’을 탄생시켰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 사상이 ‘신체의 자유’와 ‘소유권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개인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사상은 왕권을 위협하는 혁신적인 개념이었다. 이 자유 사상은 당시 정치철학인 ‘왕권신수설’을 새로운 개념인 ‘사회계약설’로 이행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부

여한 권리로, 시민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스스로 뽑는 다수결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탄생시켰다. 이것이 ‘봉건국가’에서 국민주권이 기반인 ‘국민국가’(nation state)로 전환하게 했다. 또한 절대 권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 언론과 시민들의 감시 활동 등 권력 분산을 발전시켰다. 권력 분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화합을 이끄는 공화정이 성장했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당시 지도자들은 권력 분산이 정치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국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하는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일반의지’로, 국가 정체성에 필수 요소로 정의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1천 년 동안 기독교인이었던 왕과 교황의 왜곡된 권력에 대항했다.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만들어졌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의 천부인권 사상을 시작으로 탄생했다.

정치 분야의 개혁이 경제 분야로 확산해서 산업혁명을 통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보이지 않은 손’이라는 시장경제의 핵심 사상, 주식회사 제도를 통한 국민자본 형성, 프랑스 귀족이 호기심으로 발전시킨 과학혁명이 개신교 국가 영국의 평민들에게 전해져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자본주의 형

성의 핵심적인 이론과 실천 대부분이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발전했다.

가톨릭의 타락은 종교개혁과 대척점이 되는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을 만들어 냈는데, 무신론자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무신론자 칼 막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는 노동력의 착취 구조이기 때문에 점차 공산주의 경제로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판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종교개혁자 후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를 반박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적인 직업 윤리에 의해 자본과 기술이 축적돼 탄생한 것으로, 자본이 많은 왕과 교황 등과 같은 기독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시스템이다. 인류 최초의 경제활동은 수렵과 채집이었고, 모든 구성원이 의식주에 종사하며 잉여생산이 없었다. 농업경제로 전환되면서 잉여생산이 가능해졌다. 인구 95%가 의식주에 종사하고, 잉여로 살아가는 왕족, 귀족, 군인과 사제 등은 5%에 불과했다. 자본주의경제로의 전환은 잉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오늘날 인구의 90%가 의식주 이외의 분야에 종사하도록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하나님이 종교

개혁과 함께 인류에게 준 선물이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기독교 선배들의 헌신으로 탄생했다. 모든 기독교인이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의 기독교적 뿌리와 역사를 꼭 기억하기를 소망한다. 건강한 크리스천 기업이 되기 위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함께하고, 상대 기업에게도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확산하는 교회 같은 기업, 선교하는 기업의 출현을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에서 그 영광(눅 24:26), 즉 십자가로부터 부활이라는 구속사의 가장 심오한 동선을 보여 주셨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요 14:6)”이라고 말씀한다. ‘그 길’(the way)에는 정관사 ‘The’가 자리 잡고 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의미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이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의미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혁신은 고난에서 태어난다. 고난의 깊이에서 혁신의 높이가 탄생한다.



박성진 교수
(OCC공동체, 포스텍 교수)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한국의 기독교문화 유산’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으려면...”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저자)

광주선교부에
서 활동하던 유
진 벨 선교사는
목포로 갔다. 배
를 타고 서해안
을 따라 북상하
면서 전도여행
을 하기 위해서
였다. 어느날 그
는 영광 법성포
로 가려고 배를
몰았다. 법성포가 영광에서 가장 번성한 곳
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성포인 줄 알고
상륙한 곳이 아월도였다. 아월리는 당시만
해도 섬이었다. 뜻하지 않게 아월리에 상륙
한 유진 벨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주민
몇몇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때가 1908년
4월이었고, 그 일이 아월교회의 시작이었다.
일진회에 맞서던 의기(義氣)를 가진 문영국
과 정정옥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월교회가
시작됐다. 그 후 아월교회는 이 일대 여러
교회의 모태교회가 되었다.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일본 어용단체
일진회의 횡포에 맞섰던 의기 높은 이들이
였다. 그래서 훗날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가 폐쇄되기도 했다. 신앙을 갖게 된 아월교
회 성도들은 선교사들에게 학습과 세례 문
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아월교회의 아픔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
직전에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2일 공산
군 1개 부대가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아
월리 지역에 상륙했다. 여순반란사건을 진

압하기 위해 내려와 있던 국군과 경찰의 토
벌에 거의 섬멸당하고, 일부 잔당들이 마을
뒷산에 숨어들었다. 그중 한 명이 아월교회
성도에게 발각돼 경찰에 신고되었고 체포
후 총살당했다. 이 사건으로 아월교회에 대
한 공산군의 보복이 끔찍하게 자행되었다.

1950년 7월, 공산군이 영광군 일대를 점령
하면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지난 일에 대한 보복으로 아월교회 성도들
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수장시
키고, 어떤 이들은 구덩이를 직접 파게 하
고, 손발을 묶은 뒤 생매장했다. 갯벌에 구
덩이를 파고 수장시키기도 했다. 일본도로
목을 내리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때
아월교회 성도 65명 전부가 순교했다. 한 교
회 성도 모두가 순교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였다. 당시 9살이던 최중환 장로는 끔찍했
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증언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유교
사상이 투철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인
민군에 끌려가 인민재판 후 죽지 않고 살았
다. 6.25 전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모든 성도가 공산군에 의해 학살된 이후 ‘
예수 믿다 망한 동네’라는 소문이 퍼졌다.
때문에 교회 문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살아
남은 성도가 있어야 교회를 다시 시작할 텐
데 아무도 없었다. 순교자를 기리는 일은 더
더욱 어려웠다. 그러던 중 1953년 안창권 전
도사가 광주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교회학
교를 열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
월교회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예수
믿다가 온 가족을 죽일 셈이냐”는 어른들의
드센 반발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많은 목회자가 거
쳐 갔다.

1988년 배길량 목사가 부임해 아월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다. 순교자 명단을 확
보하기 위해 면사무소를 찾았으나 사망신
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일가족 모두가 죽
었으니 누가 사망신고를 할 수 있었겠는가?
40년 넘도록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
니 그 상황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으리라.
배 목사는 아월교회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
지 않으려면 그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필요
하다고 역설했다. 배 목사의 호소에 몇몇 교
회가 응답하면서 1990년 교회 마당에 순교
기념탑이 세워졌다. 순교기념탑 건립 즈음
기록된 글 몇 줄을 소개한다.

“... 교회는 불타고 교인 전체(65명)가 거
룩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한때 이 지역 복
음화가 단절된 듯하였으나 이들의 순교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서 이곳이 믿음의 모
퉁이들이라고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증언해준
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는 정성
어린 기념탑을 세우면서 이곳이 여호수아
의 증언석이 되어서(수 24:27) 65인의 귀한
순교의 신앙을 영원토록 전해주기를 바란다.”

순교기념탑을 건립한 뒤에도 후원의 손길
이 계속 이어져 ‘순교자기념관’을 추가로
건립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체현할 수 있
도록 여러 시설이 들어서면서 견학뿐만 아
니라 숙박도 가능해졌다. 순교기념관 앞
에는 고훈 목사가 쓴 ‘당신들이 뿌린 순교의
피로’라는 시비가 세워졌다.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
은 묵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 쉬며 살
고 당신들은 숨 막혀 죽음으로 여기 살아 있
습니다. ... 오늘도 당신들이 뿌린 피제단
에서 우리 같은 영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
늘 복을 추수합니다.”

순교기념관 입구에 적힌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는 기독교인
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력하다. 전시관
에는 한국전쟁, 아월교회 관련 자료들이 패
널 해설과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적당한
분량의 설명문이 있어서 오히려 더 꼼꼼하
게 읽게 된다. 순교자들이 다녔던 옛 아월교
회 머릿돌이 있는데, 그곳에는 순교자의 명
단과 <여호수아>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
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
리라”(수 2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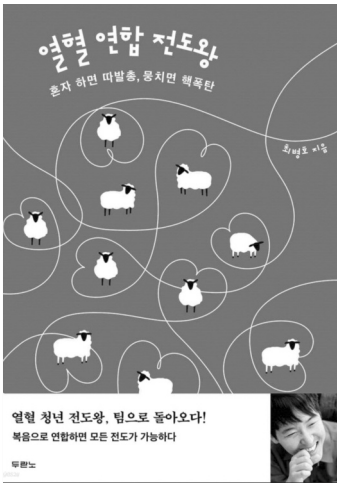
선교사들이 아월리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
는 모습의 조형물, 선교사 가방, 오래된 성
경, 불에 탄 십자가 등도 전시되어 있다. 공
산군에 의해 핍박받고 순교 당하는 장면의
조형물도 있다. 옆 방에는 맞잡은 손 조형물
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죄로 얼룩진
손이 서로 맞잡고 있는 조형물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상처로 얼룩지고 부서진 손
을 부여잡고 있다. 맞잡은 손 조형물이 있는
1층 방 벽에는 순교한 아월교회 성도들의
사진과 명단이 있다. 윗층에는 한국전쟁 당
시 순교한 교회 지도자들의 사진과 명단이
전시되어 있다.

신간 소개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함께하면 넉넉히 가능하다!

믿음 그리고 진정한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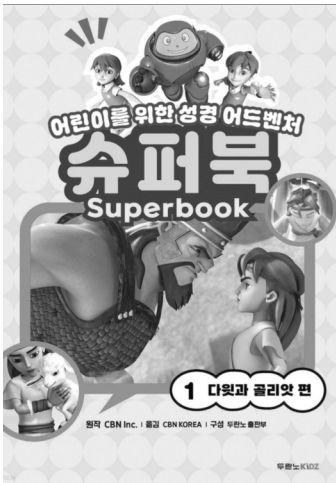
<열혈 연합 전도왕>
최병호 저 | 두란노 | 16,000원

으로 연합해서 전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남을 구체적인 경험과 사
례로 보여 준다. 전도 지침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합력
하여 선을 이루신다.”

<열혈 청년 전도왕>으로 잘
알려진 최병호 교사는 연합해
서 전도하면 그 힘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했
다. 기도 중에 “혼자 전도하면
파발총이지만 연합해서 하면
핵폭탄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
씀을 듣고 더욱 연합에 힘썼다.
또 저자는 “전도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임을 강조
한다. 그래서 언제나 전도대상
자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복
음을 전한다.

<열혈 연합 전도왕>에서는 하
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슈퍼북1: 다윗과 골리앗 편>
CBN Inc 저 | 두란노 | 14,000원

<슈퍼북1 다윗과 골리앗 편>에서는 <사무엘상> 16~17장 현장으로
떠난다. 아이들에게 ‘믿음’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슈퍼북 시리즈>는 1981년 일
본 선교를 위해 2D 애니메이션
으로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서면서 디즈니사 출신 애니메
이터들과 성경학자들이 협력해
3D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했
다. <슈퍼북 시리즈>는 ‘시간 여
행’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어
린이를 눈높이에 맞춰 성경 이
야기를 각색했다. 주인공들이
성경 시대로 떠나 성경 인물들
을 직접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 참여한다. 그리고 현실로 돌
아와 슈퍼북 탐험에서 얻은 깨
달음으로 그동안 고민하던 문
제를 풀어 나간다.

환경과 건강 지키고,
용돈까지!

기자는 요새 애플테크(스마트폰 앱을 통한
재테크 활동)에 푹 빠져있다.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용돈까지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보호를 위해 가장 쉽게 실천하는
방법이 교통수단을 바꾸는 것이다. 환경
을 가장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두 발로
걷는 것이다. 먼 거리가 아닌 이상 걷는
것을 추천한다. 환경을 해치는 탄소 배출
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걷기를 실천하기로 했
다면, 걸음 수를 측정해서 포인트를 얻는
앱을 사용하면 좋다. 캐시워크, 교보라플,
오락, 원워크, 머니워크 등 정말 많은 앱
이 있다. 그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 적립률, 보상 방법 등을 파악해
서 앱을 고르면 된다. 걸음 수를 채우면
포인트가 모이는데, 상품권이나 현금 등
으로 교환해서 사용하면 된다.

기독교 OTT 풍당 론칭 4주년 및 가입자 20만 명 돌파

3월 11일까지 축하 이벤트 ... 댓글 달고 구글폼 응모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 (Fondant)이 론칭 4주년 및 가입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를 기념하는 축하 이벤트를 3월 11일(화)까지 실시한다. 기독교 OTT '풍당' 메인화면에 올라온 '풍당 가입자 20만 돌파 SPOT' 영상에 축하와 응원을 담은 댓글을 달고,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폼으로 축하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홀케이크 및 커피 상품권 등)을 보내준다. 풍당 가입자 20만 명 돌파 기념으로 20번째, 200번째 응모자와 특별한 사연을 가진 가입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CGN 홈페이지나 기독교 OTT '풍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면 된다.

한편 기독교 OTT '풍당'이 지난해 12월 6일 구글 안드로이드 TV에 신규 론칭했다.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TV와 구글 크롬캐스트에서도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신임 회장 선출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가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KCOC는 지구촌의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140여 개 한국 국제구호개발 NGO의 연합체다. 후원자가 440만 명 이상이고, 총 예산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국내 최대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 협의체다.

KCOC가 지난 2월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前 주브라질 대사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를 제13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한국해비타트 등 63

개의 회원 단체가 참석했다.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는 국제 통상 개발 협력 전문가다. 주OECD 초대 공사, 주중국 공사, 주홍콩 총영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 NGO 더멋진세상에서 사역하고 있다.

김광동 대표는 "빈곤과 질병, 재난 등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KCOC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광동 대표

양재 권사콰이어 대원 모집

3월 25일까지 전화 접수 및 오디션

양재 권사콰이어 대원을 모집한다. 양재권사회 소속 권사가 대상이다.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전공자를 우대한다.

양재 권사콰이어 대원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양재온누리교회 권사회 소속 권사들은 3월 25일까지 전화(010-8175-2004)로 접수하면 된다. 오디션은 매주 화요일 양

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한다.

양재 권사콰이어는 2011년 창단된 여성합창단이다. 수요일여성예배, 개강예배, 종강예배,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여성예배 등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다. 지난 2016년, 2018년, 2024년에는 가을 음악회를 열었다.

문의: 010-8175-2004

한국어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3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현장, 온라인 강의

한국어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현장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한다. 현장 강의는 3월 8일(1주차) 오후 4시 양재 두란노홀, 5월 17일(10주차) 오후 5시 양재 드림홀에서 한다. 온라인(Zoom) 강의는 3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2~9주차)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한다.

한국어선교학교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

는 훈련생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한국어 선교 필요성과 전략,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문화 교육론, 한국어 이해 교육론, 한국어 표현 교육론, 한국어 교육의 실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3월 1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3888-9901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훈련생 모집

3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지온누리교회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35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지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괴롭혀줄', '가계도', '가정제도의 원리', '부부치유와 연합', '부부 의사소통의 실제',

'깊은 대화(부부의 성)', '자녀 양육의 이론과 실제', '하나님 가정의 영성', '성령이 충만한 가정', '부부관계 개선',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3월 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40만 원. 문의: 010-4738-5050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개강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이 개강한다.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0분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15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교재비 별도).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 그리고 선교',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7228-5798

/ 박지혜 기자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본부 177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28일(금)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2272-1875

온누리 도서관 봉사자 모집

온누리 도서관 봉사자를 모집한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온누리 도서관(온누리청소년센터 3층)에서 이용자 열람 및 대출을 돕고, 도서 및 자료를 배치하는 봉사자를 한다.

문의: 010-8953-1628

'울산이여! 열방을 선교하라!'

온누리M미션, 울산에서 '이주민 선교 콘퍼런스' 개최

온누리M센터와 기아대책이 주관하는 이주민 선교 콘퍼런스가 '울산이여! 열방을 선교하라!' (시 67:5)를 주제로 지난 2월 22일(토) 울산태화교회에서 막 올랐다. 온누리M미션 리더십 및 사역자, 이주민 선교 관련 기관 담당자, 지역교회 리더십, 이주민 선교 헌신자 60명이 참석했다.

이주민 선교 콘퍼런스에서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와 김태완 목사(온누리M센터)가 강의하고, 온누

리M센터 이주민들이 간증했다.

김홍주 목사는 "이주민 선교는 단순한 사회적 대응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기회"라고 했고, 김태완 목사는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있는 지역 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5 장로사관학교 개강

3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2025 장로사관학교가 개강한다. 3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1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두란노홀,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2025 장로사관학교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등이 강의를 한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 <돈, 소유, 영원>, <기도하면 행복

해집니다> 등의 책을 읽고 독후감도 제출해야 한다.

5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캠퍼스 및 사역자 탐방을 한다. 조별로 온누리교회 국내 12개 캠퍼스와 선교 기관, 국제본부, 장애인본부, 사회선교본부, 차세대, 대학청년부, 열린새신자예배 등을 탐방한다. 10월 29일에는 러브소나타에 참가한다.

/ 홍하영 기자

하우미션 총체적선교스쿨 훈련생 모집

3월 8일~4월 5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하우미션(How Mission) 총체적 선교스쿨'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신동아쇼핑 311호에서 진행된다.

하우미션 총체적선교스쿨은 선교를 쉽게 이해하고, 선교를 삶과 사역에 적용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다. 선교 원리와 아웃리치 아이디어

등을 가르쳐 준다. '총체적 복음(하나님 나라의 복음)', '총체적 관점과 총체적 선교 소개', '세계관과 총체적 선교의 원리', '총체적 선교의 실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3월 1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336-6094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서빙고 권사회」에 감사합니다



/ 김주영 집사(한강공동체)

하늘을 감동케 하는 사역

지난해 이종사촌 여동생의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렀다. 막내 이모 내외분도 몇 년 전에 소천하셨고, 형제자매 없이 미혼인 사촌 여동생은 어려서부터 우리 남매와 가깝게 살면서 같이 자란 막냇동생 같은 사이였다. 사촌 여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돼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촌 동생을 온누리교회로 인도하고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다 3년 전, 사촌 여동생에게 암이 발병했고, 지난해 11월 결국 소천했다. 투병 중에도 공동체의 관심과 기도로 많은 용기를 얻었고, 힘을 내 열심히 치료 받고, 일상생활도 꾸려가며 열심히 살았는데, 더는 허락되지 않은 삶의 시간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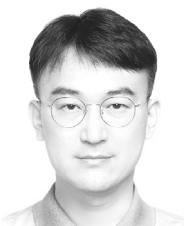
장례식이 진행되는 3일 내내 한강공동체와 서빙고온누리교회 권사회가 함께해주셨다. 많은 분이 함께해주셔서 내 안의 슬픔을 참지 않고 토해낼 수 있었다. 위로예배와 천국환송예배를 드리며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신 든든한 믿음의 식구들 덕분에 장례를 편안하게 치를 수 있었다. 특히 내 마음속 감정들이 천국 입성에 대한 기대로 바뀌고 평안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장례 이후에도 슬픔에 잠기지 않

고 평안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많은 분의 위로와 위안을 받았는데, 특히 서빙고 권사회에 감사하다. 내가 공동체 총무로서 여러 장례예배에 참석하면서 느꼈지만, 권사님들은 언제나 이른 새벽 발인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위로해 주시는 따스한 분들이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조가를 합창해 주시고, 운구차를 환송해 주실 때 ‘유가족뿐만 아니라 고인이 된 영혼까지도 이 땅의 모든 아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서빙고 권사회는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시간이 경건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는 힘이 있다.

경향 없는 유가족들을 위해 달려와 주신 권사님들의 노고가 장례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서빙고 권사회의 장례사역은 정말 하늘을 감동케 하는 놀라운 사역이다. 슬픔 가운데서 위로와 희망,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서빙고 권사회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권사님들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힘을 내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이 귀한 사랑의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나도 우는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다.

「양재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최일권 성도(송파A공동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와이미션 7주 과정은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심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어렵게나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그럼에도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었다.

매주 이어지는 배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선교의 의미가 깊이 다가왔다. 작은 섬김조차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가면서 이뤄야 한다는 것, 선교란 단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것을 배웠다.

와이미션 5주차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걸으며 그곳에 잠든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봤다. 그분들이 조선을 향해 가졌던 사랑과 헌신이 깊이 느껴졌다. 각자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조선에 대한 사명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분들의 삶 자체가 놀라운 간증이었다. 내가 누리는 신앙의 뿌리가 그분들의 헌신 덕분임을 새삼 깨달았다. 질병과 문화라는 장벽을 넘어 조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뚜렷했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메시지였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심기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와이미션 6주차에는 최영석 선교사님과 만남을 통해 선교의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선교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 땅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며,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다.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내게 강한 울림을 줬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영석 선교사님을 통해 받은 감동과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이제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할 것이다. 와이미션 훈련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열정으로 주위 사람들과 세상에 하나님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할 것이다.

「이주민 설 집회 참가자 간증」



/ 람가나 형제(온누리M센터 스리랑카예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는 2022년 온누리M센터를 만났고, 그 이후 삶이 180도 달라졌다. 하나님은 온누리M센터를 통해 내 삶을 인도하셨다.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온누리M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이 컸다. 낯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온누리M센터가 언제나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고, 그곳에서 만난 성도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었다.

지난 설 연휴에는 콜린 아이아의 초청으로 아내와 함께 ‘이주민 설 집회’에 참가했다. 우리 부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온누리M센터로 향했다. 이주민 설 집회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다.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면서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 우리의 건강과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렸다. 모임 첫 시

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에도 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탔다. 익숙하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서울 스카이 타워에 올라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손길도 느낄 수 있었다. 나와 아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깊이 감사했다.

이번 이주민 설 집회에서 하나님이 좋은 공동체와 친구들을 허락하셨다. 특히 콜린 아이아와 온누리M센터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기를 기도한다.

“GOD bless you all.”

■ 스리랑카예배 준비모임
장소: 안산 온누리M센터 3층 경기한국어랭
기지스쿨 교무실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문의: 010-8992-5460

「135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간증」



/ 백지운 성도(광명늘샘교회)

“내 딸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겠다!”

“두란노어머니학교가 뭐야?”

딸 시아의 물음에 “좋은 엄마가 되도록 가르쳐 주는 곳”이라면서 “시아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다니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그래서 나를 꼭 닮은 내 딸 시아가 어느덧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고, 사춘기가 한창이다.

눈만 뜨면 지적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면서 딸과의 관계가 점점 극으로 치달았다. 하나님 밖에 없는 딸을 그렇게 미워하는 내 모습이 참으로 무서웠다. 그런 내 모습을 회개하고, 변하기 위해 기도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시아를 향하는 미움과 짜증이 나를 지배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세족식에서 시아의 발을 씻기면서 엄마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 보라고 했다. 시아가 말한 것은 크고 거창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었다.

“엄마는 반응이 너무 없어. 무표정해. 화났어?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줘!”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해

달라는 소소한 부탁이었다. 이런 것 하나 들어주지 못한 못난 엄마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시아는 늘 좋은 엄마, 따스한 엄마를 원하고 있었다. 그 신호를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늘 외면하고 있었다. 이제 두란노어머니학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남겨진 숙제를 말이다.

시아가 ‘열매’ (태명)였던 시절,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임신 초기의 나와 시아 아빠를 기억한다. 언제나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내 딸 시아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딸과 남편,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가족에게 더 따뜻한 사랑과 이해로 다가가도록 도와주세요”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섬기는 모든 분께도 감사를 전한다.

장로칼럼

성령의 감동으로!

원우현 장로
(서빙고공동체)

사랑하는 여동생 원인희 권사가 하늘 나라로 떠난 뒤 특별한 간증이 있었다. 여동생 빈소에 생면부지 중국 선교사 한 분이 문상을 왔다. 바로 2003년 중국 충칭에 선교센터와 한인 교회를 세운 정아브라함 목사였다. 정 목사는 여동생이 주님의 이름으로 중국 충칭 선교센터와 한인 교회 건축비용을 헌금했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정 목사에게 건립 비화를 들으며 ‘바로 이게 성령이 하시는 표적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가 밝힌 비화는 이랬다.

정 목사는 중국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전세로 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인 교회 용도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교회 임차가 너무 어려워 눈물로 철야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 전세를 구하지 말고, 교회 건물을 신축하거나 구매하라고 명하셨단다. 정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선포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교회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적지 않은 성도가 저항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다.

바로 그때, 여동생 원인희 권사는 미국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생인 원좌현 장로의 신장을 기증받아 미국 샌디에이고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냈다. 게다가 뜻밖의 급전적인 축복을 맞았다. 수술 비용을 준비했는데, 수술 뒤 병원비를 정산했더니 환율변동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남은 것이다. 원 권사는 남동생의 신장이 자신에게 잘 맞고 부작용도 해소되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마

음이었다. 그 감사를 표할 길을 찾으며 기도하는데 “중국에 눈을 돌려라. 그 많은 중국인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동안 일본 선교에만 앞장서 몰입하던 원 권사였기에 의아했는데, 동료 권사를 통해 중국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됐다. 원 권사는 절묘하고 강권적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즉시 순종했다. 그렇게 수술하고 남은 돈 전액을 중국 선교지에 헌금했다.

원인희 권사는 평생을 “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병고를 이겨내며 살았다. 거액의 헌금으로 중국 충칭 선교센터와 교회 건축을 전담했는지 생전에는 아무도 몰랐다. 고인은 묵묵히 각국의 선교 활동을 감당했다.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선교와 전도사역을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방을 섬기며 살다가 77년 나그넷길을 마감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 5:16-18).

이 말씀은 여동생이 생전에 애송하던 구절이다. 여동생은 산후조리 부작용으로 지병이 있었지만, 늘 복음을 명약으로 복용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았다.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 자주 웃는 하나님의 딸로 기쁨을 나누는 데 인색함이 없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숨은 일화가 사망 이후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참으로 예수 닮기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갚고자 노력했던 동생 원인희 권사를 기억한다. 나도 여동생이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 천국의 씨앗을 뿌리려 한다.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늘 깨어 기도하며 몽골 선교로 지속해 온 ‘Soonchurl gift of Love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다해야겠다.

권사칼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 ‘엄마’

한은경 권사
(일산공동체, 두란노
어머니학교 본부장)

“권사님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무슨 위요.”

자주 듣는 고민이다. 의외로 많은 여성이 ‘엄마’라는 자리를 버겁게 생각한다. 그녀들에게 자녀는 본인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일 뿐이다. 엄마가 감당

해야 할 임신과 출산, 육아의 몫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과연 이 아이를 경제적, 정서적으로 잘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다.

옛날에는 엄마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생활고를 잊었다. 아이들은 팍팍한 생활에 웃음을 가져다주는 보물이자 재산이었다. 물론 요즘 엄마들이 느끼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은 옛날 엄마들보다 무거울 수 있다. 옛날에는 아이들 곁에 엄마 말고도 할머니, 이모, 고모뿐 아니라 마을 어른스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오로지 엄마에게 육아가 맡겨진다. 친척들과 뽀빠이 흩어져 살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이며, 날마다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과도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 거기에 날로 치열해지는 교육열까지 가세해서 더욱 부담스럽다. 너도나도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과외를 시키는 것을 자식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니, 경제적인 후원을 하지 못할까 봐 더 조바심을 낸다.

나는 엄마들에게 “제발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엄마들이 하는 걱정 대부분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돌쟁이 아기를 안고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다. 유치원생 아이를 돌

보며 “좋은 대학에 가야 할 텐데 어찌죠?”라고 근심한다. 그 걱정과 근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장 눈앞에 주어진 행복과 즐거움을 모두 놓치고 만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엄마들에게 주어진 행복이다. 엄마라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엄마라서 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엄마들에게 주셨다. 엄마는 아이를 낳아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한다. 때때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이가 자람과 동시에 우리도 성숙하고 발전한다. 이는 엄마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다. 이 특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수십억 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여성들의 배를 통해 지금도 소중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은 형별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신비한 특권이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갈수록 출산을 꺼린다.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자녀는 삶의 성장 동력이자, 희망 동력이다. 그러므로 ‘엄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다. ‘엄마’라는 자리는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특권과 사명을 가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생명을 보호하고 키우는 그 위대한 일에 나와 당신이 쓰임 받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엄마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기를 바란다.

신앙에세이

김성웅 목사
(제주온누리교회)

제주온누리교회는 앞에 넓은 바다가 보이고, 뒤편에는 한라산이 보이는 천혜(天惠)의 장소에 위치해 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보이는 바닷가에서 시작한 햇살이 얇은 구름 사이사이로 비추는 모습은 하나님의 옷자락 같은 느낌이 든다. 사역을 마칠 때 보이는 석양은 마치 예수님의 사랑의 피와 같은 붉고 주홍빛이 나는 빛을 보여준다.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빛들을 바라보며 쫓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다.

어느 날 그 빛을 보다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께 “저 빛이 아름답지 않나”고 물어보았다. 그 성도님이 웃으면서 답하셨다.

“아 목사님, 저런 게 있었네요. 제주도에 오래 살면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도 안 보일 거예요.”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문득 시인 김춘수가 쓴 ‘꽃’이라는 시가 떠올랐다. 그 시에 이런 대목이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존재하지만 이름을 불러 주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고,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인지하고 인식하며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제주의 그 아름다운 석양도 오랜 세월 그곳에 머문 이에게는 익숙해져 더는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린다.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을 하는가’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에 두곤 한다. 그래서 교육을 시작할 때,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는지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방향을 맞춘다. 또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어떤 직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존재가 있지 않다고 하신다. 존재는 이름에 달려 있다. 그러기에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위임을 받고 한 일이 동식물에 이름을 정하는 것이었다. 이름에 그 존재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담’ 그리고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신다. <이사야>는 다음 같이 말씀한다.

“너희 섬돌아, 잘 들으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

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사 49:1).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아셨고, 불러 주셨다. 지금도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부르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익숙한 자연의 한 풍경처럼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는데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흔들림과 방향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시로 나아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한다. 바로 그때 익숙함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로워지는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내 이름이 나의 정체성과 비전을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내 이름’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

휴먼네컷

크리스천이 걷는 믿음의 여정
그 속에 나타나는 기독교 가치관을 전합니다

방송시간

매주 목요일 **CGN TV 07시 30분** 유튜브 17시 **풍** 0시

추천 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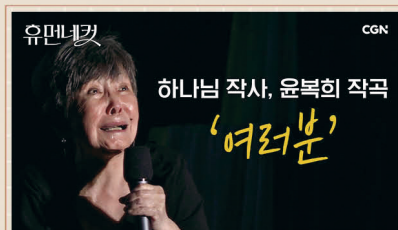


휴먼네컷 5편

56세 최경주 프로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는 이유
최경주 (프로 골퍼)



5편 보러가기



휴먼네컷 12편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가수,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
윤복희 (뮤지컬 가수)



12편 보러가기



휴먼네컷 21편

45년 차 개그맨 이홍렬의 즐거운 인생
이홍렬 (코미디언, 초록우산 홍보대사)



21편 보러가기



휴먼네컷 27편

원조 디바 아이돌 애프터스쿨 가희의
일상 대공개!
가희 (가수, 기세크루 대표)



27편 보러가기